

학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만족도 높다”

전북교육청, 올 상반기 도내 50개 학교 대상 진행
조사결과 응답자 86% “매우 만족” · 14% “만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상반기 도내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 업무 개선 추진팀이 직접 학교를 방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외 및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신규 담당자 위주의 실무 중심 자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이해도 및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실제, 컨설팅 종료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매우 만족’, 14%가 ‘만족’이라고 응답해 개인정보 업무 이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적

극 수렴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예시 확대 △누리집·내부관리 계획 점검 병행 △컨설팅 시간 확대 및 집합연수 운영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8월부터 실태 점검 및 보호 수준 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정장은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지원 중심의 컨설팅으로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JST공유대학본부부는 지난 2~4일 2박 3일간 전북 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농생명·바이오의 미래, 청년의 시각으로

전북대 ‘두드림 챌린지’ 해커톤, AI·데이터로 지역문제 해결 도전
생성형 AI·빅데이터 활용해 창의적인 해법 도출... 협업능력 향상

전북대학교 JST공유대학본부(본부장이교수)는 지난 2~4일 2박 3일간 전북 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드림(Do-Dream)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해커톤은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에 JST공유대학 융합전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비롯해 전북권 대학생 40명이 참가해 Orange3, Python,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오픈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대시보드 제작 등에 도전했다.

참가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지역 산업 현안 분석부터 문제 해결 아이디어 기획, 프로토타입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도출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프로젝트로 구성,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각 팀이 발표한 결과물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5팀이 선정됐다.

대상은 소멸 위기 농촌 살리는 법,

데이터로 본 농업 활성화의 열쇠라는 주제로 농업 지역 경쟁력 분석 대시보드 아이디어를 제시한 ‘plowdata(6조)’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팜 고도화를 위한 기후기술 분석 아이디어를 제시한 ‘7번방의선물(7조)’팀이, 우수상은 초고령화 사회 노인 질환 현황과 의료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간부(5조)’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교우 본부장은 “이번 해커톤은 농생명 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을 넘어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일반계고 교사,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 전북교육청, 실무 과정 직무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실무 과정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원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도내 일반계고 고등학교 교사 78명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전문성을 향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실무 과정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전국 단위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물론, 커리어넷 활용법, 학생 유형별 지도 방법 등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 교사들은 중간 과제로 실제 학생 2명 이

상을 대상으로 한 상담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분반별 토의를 진행하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키웠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정장은 “이번 연수

를 통해 교사들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로·학업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론부터 실습까지... 자연치유 전문가 키운다

전주기전대, 녹색채방전 발급 위한 자연치유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치유농업·산림치유 등 융합형 프로그램 구성... 총 50시간 교육 이수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귀촌 준비과정인 ‘녹색채방전 발급을 위한 자연치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강했다.

이에 따르면 이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자연의 회복력과 사람의 건강을 연결하는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자연치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주기전대학이 귀촌 준비과정인 ‘녹색채방전 발급을 위한 자연치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강했다.

참가자들은 총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이는 귀농귀촌 교육 필수 이수 시간으로도 인정받는다.

교육 과정에는 이론뿐 아니라 △익산 우리들정원 △김제 꽃다비암 △전주 산소리숲마을 등 현장 실습이 포함, 실제 자연치유 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료자에게는 전주기전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민간자격증

인 그린라이프힐링지도사(주무부처: 농촌진흥청)가 발급된다.

교육 책임자인 최연우 치유농업과 학과장은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자연을 매개로 한 전문인력 양성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은 물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주기전대학은 이러한 사

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 신청은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내 고교 통합과학 교사 전문성 강화

전북교육청, 2025년 통합과학 교과서 분석단 운영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분야 12명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5년 통합과학 교과서 분석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분석단은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분야의 고등학교 과학 교사 12명(각 3명씩)으로 구성, 교수학습 모형 구안 및 자료 제작을 통해 통합과학 수업의 질을 높이고, 고등학생들의 과학교과 학력신장을 지원하기 위

해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한 분석단은 통합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개념, 탐구 및 실험 활동, 학습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난제를 도출했다. 이는 개별학교에 모든 전공 과목(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공과목이 아닌 수업이라도 전공과목 교사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모형에 기반한 수업 설계안, 탐구활동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제작 중이다.

오는 8월에는 통합과학 교수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정장은 “통합과학 교과서 분석단 운영은 과학교사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 학습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더위 속 학생 건강·안전 최우선”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전라회의서 강조
여름방학 학생 주도형 적정 과제 제시 당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7일 전라회의에서 “밤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일사병이나 식중독, 익사 사고 등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를 학교에 발송했는데, 학생 주도형 적정 과제 제시로 우리 학생들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전주교대, 2024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최종평가 ‘우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7일 전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연수 조직의 구성, 감사 관리 체계, 프로그램 예산 집행 및 운영 측면에서 우수 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교 규모별 예산안 수립 가이드를 마련해 연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과, 체크리스트 기반 모니터링을 통한 연수 현장의 피드백 반영 노력이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보안을 거쳐 2025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학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실습실 유해 요인 점검 통한 학생·교사 건강 보호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실시
도내 22개 학교 86개 실습실 대상 이달 말까지 정밀 측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실습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 및 교원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습 종류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목공과 선반 밀링 실습 시 발생하는 소음, 목재분진 등 △용접 실습할 때 용접흄, 먼지, 산화철, 크롬 등 △납땜 실습할 때 납, 구리, 주석 등 △도장 실습할 때 톨루엔, 크실렌 등이다.

올해는 도내 22개교 86개 실습실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정밀 측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실습 참여 학생 및 교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도 함께 이뤄진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정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실 유해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의 안전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 학생과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